

# 친환경 자동차 · 조선산업 육성

### 군산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환 · 중소형 선박 기술 개발 박차

군산시는 17일 친환경 지속 가능한 자동차 · 조선산업 육성을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력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분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자동차 업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과 민간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관련업체 전기 · 전자 부품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 ·

공동장비 활용 지원 완성차 · 부품업체 간 협업으로 사업화가 즉시 가능한 모듈단위 부품 기술개발 국내외 유통 자동차 대체부품 신규개발 및 인증 · 판매지원으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조선산업 분야에서는 중소형선박 친환경 기술향상 및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다각화를 지원코자 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센터 구축 중소형선박 플로팅 독 건조 지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선박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 알루미늄 ·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건조

기술 확보 및 신조 · 개조 · 수리를 지원하고 중소형 선박의 전주기 관리 및 해상 중량물 기자재 운송 등의 관련 시장 경쟁력 확보 저 · 무탄소 연료(LNG LPG, 암모니아 등)사용 가능한 진 개발 및 핵심 기자재 실증자원으로 취약한 조선산업 구조를 기술기반 중심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자동차 · 조선산업 미래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다양한 R&D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을 통한 매출향상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 친환경 인증제 페러다임에 걸맞는 행정력 갖추자

### 환경부 군산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환경부 의원은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친환경 인증제(G-SEED) 페러다임에 걸맞는 행정력을 갖추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환경부 의원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B(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는 공공건물에 대한 B(인증)을 의무화하고 2021년 12월 4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B(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증축 개축, 재

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본 인증 전 예비 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 인증인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등의 유사인증제도도 법개정을 통해 생태환경, 생태경제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의무를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자체 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생애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이바지한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지자체의 건축 환경, 사회 복지 부서 외 모든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홍보의 부족에 있다고 꼬집었다.

군산=김판근 기자

## MZ세대도 사로잡은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 '인기'

### 청년 · 어르신까지 즐기 수 있는 핫플레이스 부상...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익산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 '상상노리더'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전통시장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떠오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청년 창업인까지 함께 윈윈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임시영업 중인 청년몰 '상상노리더'가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총 17개 점포로 구성된 청년몰은 현재 1층에는 타코야끼, 초밥, 중식 등 여러 종류의 음식점이 입점해 영업 중이며 2층은 아로마 · 피부 마사지사, 네일샵, 주얼리샵 등이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 덕분에 임시 운영 1달만에 청년몰을 찾는 이용객들



익산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 '상상노리더'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전통시장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부쩍 늘었다. 일부 점포는 일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늘리는 점포도 생겨났다. 또한 청년 창업인들도 입점을 준비

중이다. 다음 달에는 카페와 구운과자, 농특산물 밀키트, 이벤트 파티용품 판매 업종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새만금신항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채택

### 김우민 군산시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우민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이다"며 현재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 11월에 착공해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하였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으며 202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3개 시 · 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까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이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로 불렸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일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우민 의원은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한다"며 "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의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2023년 성공취업 다이로움 박람회 성료

익산시가 올해 첫 취업박람회인 '2023년형 매월 성공취업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17일 청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익산시 우수기업인 하림산업, 한소리제약, 마더스제약, 기원전자, 부성테크 등 1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50여명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1:1 상담을 진행했다.

별도로 마련된 기업홍보관을 통해서도 기업의 근무현장을 소개하고, 이미지메이크업, 청년시청 투어 등 취업관련 구직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청년정장 대여사업, 청년 근로수당 지급 등 익산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을 소개해 참가한 많은 구직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참가한 구직자가 1년 이후에도 유지시에는 취업충격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국민체육센터 아쿠아로빅 재개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3년만에 아쿠아로빅 강습을 추가로 운영한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17일 현재 운영 중인 19개 수영강습 프로그램 외에 오는 2월 7일부터 아쿠아로빅 강습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이편 석화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25% 이용객 증가와 코로나9 미발생 등, 프로그램 운영상 저해 요소가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쿠아로빅을 개설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외부 강사를 초빙, 강습을 추진하게 됐다.

아쿠아로빅은 수영에서 즐기는 에어로빅이라는 뜻으로 경쾌한 음악에 맞춘 워터 워킹, 아쿠아 댄스, 수중 조깅, 시니어 댄스 등을 접목해 이용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물에 대한 적응력과 전반적인 신체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수준증동 프로그램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 등 고향사랑기부 잇따라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익산시 출신인 조수진 의원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탁식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재경도민회에서 정현을 익



산시장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향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조수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산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음식점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NE농협으로 방문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